평창 월정사 주지에 정념 스님 당선

12월 12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정념 스님<사진>이 다시 당선됐다. 월정사는 12월 12일 경내에서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념 스님은 "한암대종사, 탄허대종사, 만화대선사의 수행과 가람수호 정신을 계승해 한국불교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사미계를, 198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대산 상원사서 수선안거 이래 49안거를 성만하고,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5년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부장에 정인 스님 임명

12월 12일, 포교연구실장에는 묘광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정인 스님<사진 왼쪽>, 포교연구실장에 묘광 스님<사진 오른쪽>을 임명했다.



신임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걱정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교중점 사업을 완수하고 7대 포교원 성과를 정리하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포교원과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인 스님은 혜창 스님을 은사로 1995년 수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상주 황령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임 포교연구실장 묘광 스님은 법타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으며, 2017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두천 중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달력사업 국고 횡령 의혹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재가단체 조계종 고발 건 불기소 처분

일부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출판사 前 대표이사 자승 스님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달력사업을 관장하는 조계종 ㈜도반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1500부를 자승 스님이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2000부의 달력은 템플스테이 주요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고,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계종출판사 자체적으로 공공목적 기금 확보를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3000부의 달력은, 사업 종료 후 수익금 4000만원을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 원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 제작업체인 다혜미디어 등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제작된 달력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자승'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해 무상 배포한 사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내년 韓中日·韓日교류대회 국내 개최

한중일 우호교류 통도사·한일대회 금산사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년 한중일불교 우호교류회의와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모두 국내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동북아시아 불교의 우호교류를 위해 각국이 함께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정을 일부 공유했다.

종단협은 내년 한중일 교류회의를 10~11월 중 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제주도에서 3국 예비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를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종단협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0% 증액된 11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72% 증액된 7억5700만원이다. 종단협은 이외에 한국대중불교불이종의 신규가입을 위한 심사위원단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했다. 또한 전반적인 정관 검토를 위한 기구인 '정관개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원효종·보문종·원융종·법상종·총화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2개의 집행부로 양분돼 종무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태고종에 대해서는 내년

한중일 3월 예비회의 제주도
6월 한일대회 40주년 주제로
종단협 내년 예산 11억4천만
한일협 이사장 회성 정사 추천

2월 종단협 총회 전까지 집행부를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회원 자격을 유보키로 했다. 이날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사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회의 말미에는 지난 8월 청와대불자회장에 취임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상견례 차 참석했다. 김 수석은 "부처님 말씀이 한반도에 온지 2000년이 넘었으리라 생각한다. 학계서는 다르겠지만 가야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며 "중생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에게, 국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교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종단협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같은 장소에서 201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제40차 대회는 6월 8~10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금산사는 일본에 전해진 백제불교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회 개최지로 정해졌다. 제40차 대회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비롯해 교류 40주년 식수 및 사진전, 학술발표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불교의 가교역할을 할 청소년 교류사업은 내년 7월 첫 발을 뗄 전망이다. 양국은 2016년부터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회원종단 청소년을 추천받아 소규모로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불교협의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의 후임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를 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부이사장 인구 스님(보문종 총무원장)과 사무총장 향운 스님(원효종 총무원장)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임원진 변경은 내년 2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청하문도회, 부다가야 사찰부지 기증

통도사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
1억 약정·인도 부지 2000평

통도사 화엄 산림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후원하기 위해 ARS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후 불자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일제히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도량이 곳곳에 세워지고 승가를 공양하는 복지사업이 원만히 이뤄지길 발원했다. 1만 화엄불자들이 종단의 대형불사를 원만회향하기 위한 백만원력으로 거듭났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12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백만원력 결집 대법회'를 봉행했다. 백만원력 결집법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원력 모으기 일환으로, 조계종 집행부가 전국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불사의 가치를 알리고 원력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날 법회에서 1억 원 백만원력 기금을 약정했으며, 청하문도회는 인도 부다가야 사찰 분황사의 건립부지를 기증해 불사의 의미를 더했다. 인도 부다가야 사찰 건립부지는 청하문도회와 붓다팔라 스님이 중심이 돼 인도 마하보디 대탑 남쪽 지역에 마련한 30억 원 상당의 2000평이다. 청하당 성원 스님의 유지를 이어 인도에 한국사찰을 짓기 위해 시작한 불사이며, 불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종단의 백만원력결집불사 소식을 접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자 기증하게 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 왼쪽)이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약정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통도사는 이어 백만원력 결집불사 교구추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교구별 추진위원은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사찰에서 활동하며,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안내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앞장선다. 추진위원은 유혜연(보리수) 통도사 관음회장을 비롯해 총 21명이 선정됐다.

추진위원 가운데 이숙례(덕선화) 불자는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하며 보시바라밀 실천으로 부처님 앞에 대승원력 보살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참석한 화엄산림 대중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이어졌다. 불자들은 안내에 따라 후원 ARS 번호를 눌러 한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대회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일 모으는 작은 성금이 한국불교 중흥의 시작이자 큰 힘이 된다"며 "여기 모인 통도사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함께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상,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신도시 포교당 설립, 불교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한국불교 과제를 차례로 설명하며 백만원력 결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미래와 중흥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할 때"며 "백년대계를 위해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 함께 하자"고 권선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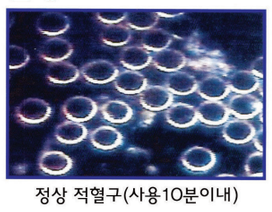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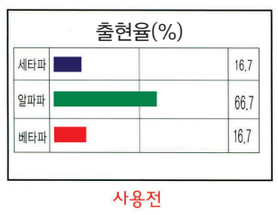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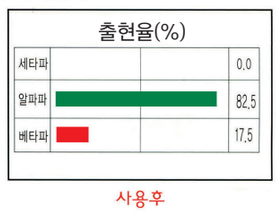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